

## 소심한 사람에게 발기부전이 많다

**원** 대에는 불안의 요인이 많아졌고 우리들은 거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안에 대한 걱정은 해야 할 것이 있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도 많다. 또 걱정해야 할 일도 우선 순위가 있어 더 중요한 것을 먼저 걱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불안해하는 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도 괜히 기분이 불안하게 느껴진다.

진찰실에서 듣게 되는 환자들의 걱정은 아주 다양하여 이런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고 깜짝 놀라는 수도 있는데 걱정해 봤자 소용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심리적 요인이 크다.

발기부전의 요인도 정신적(심리적)인 것이 50%정도로 대부분 걱정이 태산같은 소심한 사람에게 많다.

결혼도 안한 총각이 발기가 안 된다고 자살소동까지 벌이다가 식구들에 의해 병원까지 끌려와서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부인이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면 이혼하겠다고 할텐데 그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걱정을 한다.

밀월성 발기부전(결혼 후 한번도 성생활을 못한 상태)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재미있고 성 지식이 너무 없다는 것을 느낀다. 그들은 한결같이 총각 때에는 발기가 잘 되었는데 결혼하고부터 갑자기 이와 같은 현상이 왔다면 난감해 한다.

밀월성 발기부전의 원인을 살펴보면 약 80%가 심리적인 경우이며 이들은 대부분 중매 결혼을 하였는데 남편은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며 부인과 충분히 사귄 시간도 없었고 서로 친밀한 관계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서투른 행동을 취하려다 실패하고 보면 그때부터 아무리 애를 써도 발기가 충분히 되지 않는단다.

또 다른 예는 남편보다 아내가 키가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며 성격이 너무 거세서 첫날 밤 어떻게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아내가 버럭 화를 내니까 그때부터



남성이 주눅이 들어 요지부동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 밖에 아내의 요란스런 화장술에 혐오감을 느껴서, 아내에게 성적 매력이 없어서, 아내에 대한 적개심,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종교 교육을 받아서 성을 죄악이라고 생각할 때, 아버지가 바람을 너무 많이 피워서 성에 대한 혐오감을 느껴서 등등 아주 다양하다.

그런데 병원에 찾아와서 의사 앞에서 허세를 부리는 사람 치고 별 신통한 사람이 없다. 어떤 키가 훗칠하게 크고 수염도 없는 사람이 부인에게 끌려와서는 성생활을 30분 정도 하면 됐지 얼마나 더해야 하느냐고 큰소리 치는데 자기의 약점을 감추려고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하고 잘 달래어 진찰을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외모에서 느껴지는 대로 성기도 어린애 것만 하고 양쪽 고환도 콩알만하지 않는가. 더 진찰할 필요도 없이 이 사람은 중성(中性)이고 성 관계도 잘 안되겠고 더구나 임신은 불가능하다.

결혼생활을 계속하던 사람도 발기가 안 된다고 병원을 찾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집에서는 잘 되는데 밖에서는 통 안 된다고 하고 반대로 밖에서는 잘 되는데 집에서는 어떤 일인지 발기가 안되어 마누라 보기가 민망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 심리적인 요인이다.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IMF이후 성생활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40대 이후 남성 50%정도에서 현저하게 성욕이 줄어들었고 발기가 잘 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성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협력하여야 하므로 발기부전의 치료나 불감증의 치료도 마찬가지로 부부가 같이 병원에 찾아와 마스터스 와 존슨 부부가 주창하는性感 집중법(性感集中法)훈련 등 행동요법으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의사와 인터뷰를 하여 스트레스와 적개심, 성의 무지 등의 원인을 해소하여 주며 필요하다면 발기유발제 등의 치료도 겸하면 빠른 시일 내에 치료 될 수 있다.



차영일 비뇨기과 원장